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ubo.or.kr>



안드레아 산 소비노와 인노첸조 스피나치 작, 「그리스도의 세례」 (c1505)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루카 3,15-16.21-22 참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시는 구세주의 사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대신 지고 희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식으로 여기셨습니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루카 3,15-16.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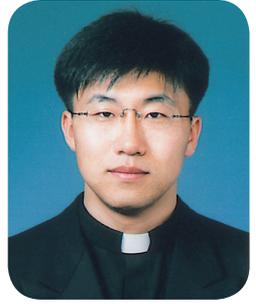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정성훈 모세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또 다른 주님 공현이라 할 만큼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특별한 날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전하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는 이 세례 예식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예식을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 물에 잠기셨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당신의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린 이들이 어떻게 해야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세례를 통해 몸소 보여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구원의 구체적인 실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성에 있어서 하느님과 결코 다르지 않는 아드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보여 주고자 겸손하게도 한낱 인간에게 죄 사함의 세

례를 받고 있으니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성자의 정체를 온 천하에 알리며 응원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례를 기점으로 성령과 함께 성부의 든든한 후원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불의와 악함이 만연했던 세상에 공정을 세워 나가는 일과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한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즉, 정의와 사랑이 가득 찬 당신 삶을 통해 당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물과 기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으셨던 은총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았습니다. 동시에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당신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시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때 우리가 약속한 맹세를 떠올리며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면 믿을 교리의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임은 틀림없지만, 실상 하나님의 계시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를 다 아우르는 완전한 계시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2) 그러므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옛날에 주어진 고정된 지식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내 생활 안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늘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맑은 정신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주신 양심도, 착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직접 사람을 만나러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점점 뚜렷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완전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

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이시고 또 사람이시므로, 우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ㅣ 이사야서의 사본 ㅣ

정보가 아닌 사람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리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시며 우리를 몹시 사랑하셨던 분과 만나고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한 시점에 나타나시어 작은 우리의 사람들과 만나셨지만, 수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만남에 초대하십니다. **말씀**



경북고등학교 가톨릭신우회를 소개합니다

이수희 로즈마리

찬미 예수님~! 경북고등학교 신우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3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7명 정도의 회원(냉담자와 못 오시는 분 포함하면 11명)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끝에 저희 학교 공학관 2층에 있는 음악과 연구실에서 약 30분간 모임하고 있습니다.



성모당을 참배한 경북고등학교 가톨릭신우회 회원들

신우회 모임 순서는 시작기도, 복음 말씀 읽기와 나누기, 생활 나누기와 마침기도로 이루어지며 마침기도 끝에는 어려움 중에 있는 회원이나 학생들을 위해 주모경을 함께 바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임 시작 후에 회원 한 분의 기타반주로 성가를 부르며 더욱 풍성함을 느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고 성모당 등에 가서 더욱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올해에는 수능시험 전날 감독관 회의 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식사하고 성모당과 성직자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전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정도 학교의 개신교 신우회와 행사를 함께 하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출하지만 뜻 깊은 행사입니다. 부활절에는 선생님들이 계란을 집에서 삶아 가져와 학교에서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함께 모여

서 계란을 예쁘게 포장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선물합니다. 성탄절에도 점심시간에 교내의 장소에서 함께 성탄파티를 합니다. 밥과 기본 반찬은 학교 식당에서 가져오고, 각자 집에서 다른 반찬이나 과일, 과자, 케이크 등을 준비해 오면 멋진 뷔페가 차려집니다. 이 성탄 모임에서는 시작기도를 개신교가, 마침기도는 가톨릭이 하고, 함께 캐럴도 부르고 음악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앞으로는 시험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더 긴 시간을 내어 가톨릭신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주위의 종교가 없으신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성모당이나 한티 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장소로 피크닉을 함께 가는 행사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조만간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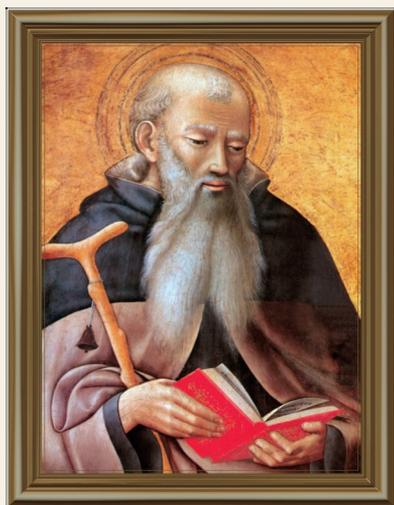
열 개의 병

어느 날 악마가 한 청년에게 열 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 아홉 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이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고 제안했다.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고생을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잡고 마셨다. 아찔했다. 하지만 청년은 곧 환호성을 올렸다. “야! 내가 살았구나!” 악마는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다. 악마는 다음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의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청년은 오랜 세월을 방탕하게 보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악마를 불러냈다. 얼마동안은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다. 악습에 깊이 빠져 버린 것이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다. 이제 두 개의 병이 남았다.

노인은 별별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노인은 기뻐했다. 그때 악마가 남은 마지막 한 병을 훔 하고 들이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때부터 돈이라는 독약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네 청춘을 망가뜨렸지. 네가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 사실을 잊게 하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악마는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다. **필문**

금주의 성인



성 안토니오 (1월 17일)

최초의 은수자로 수도생활의 시조가 되시는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이집트 코무스에서 태어나 20세에 부모를 여의고 사막에 들어가 은수생활을 시작 하셨습니다. 고행과 금욕생활 중에 악마의 유혹을 받기도 한 성인께서는 영성생활, 유혹을 이기는 방법, 영의 식별 등에 대한 많은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지혜와 학문이 뛰어나셨으며 엄격한 규율로 하느님을 섬기신 성인께서는 수도생활에 희망을 품고 찾아온 많은 청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사막의 교부> <모든 수도자들의 원조>라 불린다.



■ 교구장 대주교님, 재유럽 교구사제 연수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2년 12월 27일(목)부터 2013년 1월 1일(화)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있는 한국순교성인성당을 방문하시어 견진성사를 집전하시고, 유럽에서 연합 중인 교구 소속 사제들의 연수에 함께하셨다. 연수를 통해 제2차 교구 시노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사제들과의 면담의 시간을 가지신 대주교님께서는 또한 라스팔마스 카나리아교구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 피노 성모님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하셨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 서품



마 성 우 (세례자 요한)

서품식 : 1월 19일(토) 오전 10시 계산주교좌성당

첫미사 : 1월 20일(일) 오전 11시 도원성당

내 마음에 소옥드는 우리 아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 1대리구 성소후원회 1월 1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범어성당
-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월성성당
-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0시 경주성건성당
-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후 8시 꾸르실로 교육관
-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1월 15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9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 미바회 후원미사 1월 19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 평화를 위한 미사 1월 19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성소 | 피정

한티순교성지 월피정(매월 셋째 주 토)

일시: 1.19(토) 10:00~17:00

내용: 완덕의 길(카르멜 영성)과 특전미사

지도: 박현찬(에우세비오) 신부

회비: 2만원 (중식 제공)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헌시, 미사안수)

일시: 1.16(수) 13:00~17:00

2.20(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자 피정

중1~고3: 1.19(토)~20(일)

청년: 1.25(금)~27(일)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흥루피나 수녀 (010)4907-2754

교육 | 모집

섭리기도 모임 (미혼 여성)

일시: 1.27(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경산 어버이성경 거룩한 독서모임 모집

낮반: 월~목/ 밤반: 월~화(매주1회)

접수: 1.2~2.28, 임당역 2,3번출구

내용: 마르코, 요한복음 (선착순)

대상: 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우편학습과 이러닝학습 (동영상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바로로딸, 성바로로서원

접수: 1.25(금)

문의: (02)944-0819~24/0840~42

5차원 전면학습코칭 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1.28~30(29기), 2.22~24(30기)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 26만 원

대상: 초·중·고·대학생 / 선착순 30명

주관: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

(살레시오수녀회)

문의: (010)3883-7004, 카페: 우아청

가르멜 기도학교

기간: 1.26(토)~27(일) 매일 마지막 주 1박 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선착순 20명)

문의: (010)4650-4628, 회비: 5만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5.6~18)

주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www.terrasanta.kr

로사리오 수녀회 기숙사생 모집

장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1-6

대상: 여대생

문의: (010)4588-1394 / (02)741-3071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윤영혜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영혜(바로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거리 에플타워 5층 TEL. 755-0888

KGB

(고려익스프레스)

포장이사전문업체

대표전화 1577-2400
무로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음주운전등
윤전면허 행정심판전문

합동 감정 행정 사무소

대표 박수원(스테파노)

대구 MBC 너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

